해외 산림투자 정보

May 2019

FOCUS



세계 목재 산업 동향

국가별 임업동향
- 일본, 중국, 미국, 호주, 독일, 러시아 등

글로벌 임업뉴스
- FAO, 새로운 산림 교육 이니셔티브를 발표
- 기록적인 손실로부터의 휴식, 그러나 열대림은 아직도 문제

국내 임업뉴스, 국내 임업 동향 및 전망

산림청

Kofpi 한국임업진흥원 Korea Forestry Promotion Institute

목 차

Ⅰ. 세계 목재 산업 동향

(1) 원목 03
(2) 제재목 05
(3) 합판 07
(4) MDP 09
(5) 파티클보드(PB) 11
(6) OSB 13

Ⅱ. 국가별 임업동향 16

Ⅲ. 글로벌 임업뉴스

(1) FAO, 국제 산림의 날에 새로운 산림 교육 이니셔티브를 발표 23
(2) 지역사회의 산림 관리가 산림 벌채와 빈곤 모두를 감소 25
(3) 뉴질랜드 산림산업공학회, Harvest TECH 19 개최 26
(4) 기록적인 손실로부터의 휴식, 그러나 열대림은 아직도 문제 27
(5) 인니 · 태국 · 말레이, 천연고무 감축 합의, “국제가격 조절” 28
(6) 한국-인니, 바이오매스 에너지 투자 협력 회의 개최 29

Ⅳ. 국내 임업뉴스

(1) 국내 임업 동향 및 전망 30
(2) 산림청 34
(3) 한국임업진흥원 35

(1) 원목

2017년 기준 세계 침엽수 원목 무역량은 2년 연속 증가했다. 세계 원목 무역량은 36% 증가하였고, 특히 유럽은 2009년 최저치를 기록 후 20년간 29% 증가율을 보였다. 현재 유럽은 세계 전체 입목 수입량 중 34%의 높은 점유율을 가진다.

세계 원목 수입 상위 6개 국가의 원목 수입량은 매년 변동되고 있으며, 중국, 독일, 오스트리아 및 스웨덴은 2016년 대비 2017년 원목 수입량이 증가한 반면, 일본과 한국은 감소하였다.

제재목 수요는 향후 몇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원목 무역량 또한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07년부터 2017년 사이에 세계 상위 침엽수 원목 수입국들에서 수입량의 변화가 나타났다. 중국의 원목 무역량 점유율은 23%에서 37%로 증가하였고, 독일의 원목 수입량은 2배로 증가하면서 세계 2위 원목 무역국으로 부상하였다. 또한 스웨덴은 한국을 추월하여 세계 4위 원목 무역국으로 진입한 반면, 일본은 국내 목재 이용량 증가를 통해 종전에 세계 3위 원목 수입국에서 5위 밖으로 벗어났고 핀란드 역시 5위 밖으로 밀려났다.

한국은 같은 기간 침엽수 원목 수입량이 50% 이상 감소하였다. 독일은 원목 수요량이 증가하였고, 국내 벌채량 증가에 제약이 있어 지난 10년 동안 침엽수 원목 주요 수입국으로 부상하였다. 2016년, 2017년 양년에 제재목의 수요가 증가하여 침엽수 원목 수입량은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제재목 수출량은 증가하였다. 독일로 제재용 원목을 주로 수출하는 국가는 체코와 노르웨이로 지난 5년간 독일의 전체 제재용 원목 수입량 가운데 약 50%를 차지한다. 2016년과 2017년, 독일은 체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및 폴란드에서도 2백만 ㎥의 원목을 수입하였다.

핀란드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원목 수입량이 감소하였다. 핀란드는 2005년에 최고 원목 수입량인 8.5백만 ㎥를 기록한 이후 2017년에는 1.1백만 ㎥로 수입 원목에 대한 의존도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국내 벌채량 증가, 비효율적인 목재공장 폐쇄, 효율적인 목재 사용 등에 따른 변화로 보인다. 러시아는 원목의 주요 수출국가로서 2017년에 핀란드 수입 원목의 63%를 공급하였다. 스웨덴은 동년에 침엽수 원목 수입량이 2년 연속 증가하여 5.6백만 ㎥을 기록하였다. 특히, 에스토니아 및 핀란드로부터 수입량이 증가하였다.

*Source : UNECE, Forest Products Annual Market Review 2017-2018, FAO (`18 Nov.)

(1) 원목

■ 원목 무역량

캐나다의 침엽수 원목 수출량은 2016년 7.6백만 ㎥에서 2017년 7.4백만 ㎥로 감소하였다. 이는 일본의 캐나다 침엽수 원목 수입 감소가 주된 원인이며, 미국에서의 원목 수입 감소 역시 수출량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미국은 2017년 침엽수 원목 수출량이 11.5% 증가하여 10.8백만 ㎥를 기록했다. 미국의 침엽수 원목 최대 수입국은 중국이며, 그 다음으로 캐나다, 일본 및 한국 등이 주요 수입국이다.

중국은 2017년에 침엽수 원목 및 제재목 수입량이 높은 국가 중 하나이며, 현재 세계 최대 원목 수입국이고 제재목 수입에 있어서는 미국에 이은 2위 수입국이다. 2013년과 2017년 사이 중국에서는 호주 침엽수 원목의 수입량이 1.6백만 ㎥에서 4.2백만 ㎥로 증가했다. 뉴질랜드는 침엽수 원목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최대 수출국으로 러시아 및 미국의 수입시장 점유율을 잠식하였다.

■ 원목 가격

펄프, 제재목, 합판 및 펠릿 생산비 중 원목가격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침엽수 제재목 생산비의 65-75%, 펄프가격 중 56%는 원목비용이다. 2017년 세계 제재용 원목, 펄프용 원목 및 목재칩용 원목의 수요가 증가하며 원목가격이 상승하였다.

■ 결론

2017년에 2년 연속 침엽수 원목 무역량이 증가하였으며, 지난 10년 동안 침엽수 원목 무역량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2017년 중국 건축경기 하락에도 불구하고 침엽수 원목 및 제재목 수입량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제재목 가격인상 및 원목 무역량 증가로 2017년 중국, 유럽 및 미국을 포함한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제재용 원목가격이 인상되었다.

[표] 2007년, 2017년의 침엽수 원목 주요 수입국의 원목 수입 현황 (단위: 백만 ㎥)

2007년		2017년	
중국	23.2	중국	36.9
한국	8.1	독일	8.2
일본	7.7	오스트리아	7.9
오스트리아	7.3	스웨덴	5.6
핀란드	6.2	한국	3.2

*Source : UNECE, Forest Products Annual Market Review 2017-2018, FAO (`18 Nov.)

(2) 제재목

2017년 CIS 국가들의 침엽수 제재목 생산량은 10.4%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북미 및 유럽에서의 증가율은 낮았다. 2017년 러시아의 침엽수 제재목 생산량은 10.3% 증가하여 37.8백만 ㎥를 기록하였다. 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독립 국가 연합) 국가들의 생산량(43.8백만 ㎥) 중 86%는 러시아에서 생산되었다. 2017년 러시아 침엽수 제재목 수출량은 28.0백만 ㎥를 기록하여 2016년 대비 10% 증가하였다. 이는 주로 중국에 대한 수출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17년 중국의 러시아 제재목 수입량은 16.1백만 ㎥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20% 증가하였다.

2017년 유럽 침엽수 제재목 생산량은 1.2% 증가하여 110백만 ㎥를 기록하였다. 생산량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국가는 0.9백만 ㎥가 증가한 독일, 0.3백만 ㎥가 증가한 핀란드이다. 2017년 유럽 침엽수 제재목 수출량은 3.4% 증가하여 51.5백만 ㎥를 기록하였다. 2017년 중국의 유럽 제재목 수입량은 64% 증가하였고, 3.4백만 ㎥를 기록하면서 최대 수입국이었던 이집트와 일본을 추월하고 최대 수입국으로 부상하였다. 반면 중동 및 아프리카에서의 수입량은 감소하였다.

■ 북미

2017년 미국 주택 착공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침엽수 제재목 소비량은 2.9% 증가한 99.2백만 ㎥를 기록하였다. 2017년 캐나다 침엽수 제재목 생산량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48.2백만 ㎥를 기록하였으나, 미국 제재목 생산량은 3.5% 증가한 57.6백만 ㎥를 기록하였다. 캐나다에서 대형 산불의 발생과 미국의 캐나다 침엽수 제재목에 대한 높은 수입관세 부과 등으로 인해 침엽수 제재목 가격은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가파르게 인상된 가격으로 캐나다 침엽수 제재목의 미국 수출량은 2017년 1.4백만 ㎥(-5.8%) 감소하였다. 2017년 유럽 침엽수 제재목 미국 수출량은 130% 큰 폭으로 증가하여 1.3백만 ㎥를 기록했다.

■ 중국

2017년 중국의 침엽수 제재목 수입량은 전년 대비 18.7% 증가하여 25.1백만 ㎥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러시아(57%)와 캐나다(20%)에서 수입량이 증가하였다. 중국이 수입한 침엽수 제재목은 주로 주택용 및 건설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수입증가, 외국인 투자증가, 빠른 도시화 및 도시 인구증가 등으로 주택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도시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주택 건설량 증가세는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Source : UNECE, Forest Products Annual Market Review 2017-2018, FAO (`18 No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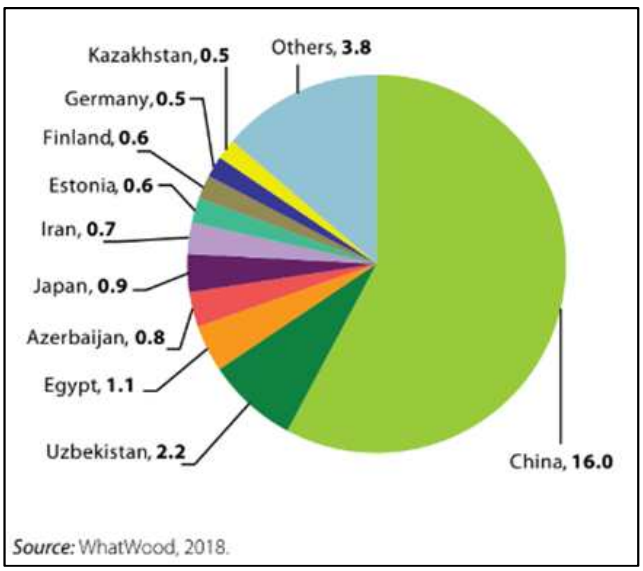
(2) 제재목

■ 일본

2017년 일본의 침엽수 제재목 수입량은 2016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목조주택 건축건수는 8.1% 증가하였으나 일본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건설근로자 부족현상이 지속되어 전체 주택 착공건수에는 변화가 없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일본 주택 및 비주거용 건물 건축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일본 침엽수 제재목은 주로 북미 및 EU에서 수입되었다. 2018년 1분기 일본 침엽수 제재목 수입량은 미국에서의 공급량 부족으로 인한 수출량 감소 및 캐나다 운송업체의 노동분쟁으로 감소하였다.

■ 기타 국가

MENA(Middle East and North Africa,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들 중 특히, 알제리, 이집트, 사우디 및 UAE에서 2017년 침엽수 제재목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침엽수 제재목은 유럽, CIS, 북미, 칠레, 브라질, 뉴질랜드 및 호주가 주요 수출국이다. 칠레는 제재목 수출 대상국을 확대하고 있으며 아시아, 남미 및 중동 국가들이 주요 수출 대상국가이다. 미국에서의 수요증가로 인해 2017년 브라질 침엽수 제재목 수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미국은 브라질 제재목 주요 수출 대상국이다. 뉴질랜드 제재목의 주요 수출국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로 중국, 미국, 호주, 베트남, 태국 및 한국이다.



[그림] 2017년 러시아 침엽수 제재목 수출국 및 수출량 현황 (단위 : 백만 ㎥)



[그림] 2013-28년 유럽 침엽수 제재목 일본, 유럽, 중동 가격현황 (단위: €/㎥)

*Source : UNECE, Forest Products Annual Market Review 2017-2018, FAO (`18 Nov.)

(3) 합판

2017년 세계 합판 생산량은 160백만 ㎥로 매우 높았다.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유엔식량농업기구)의 세계 109개국 합판 생산동향에 따르면 키프로스(7㎥)는 최저, 중국은(117백만 ㎥)은 최고 생산량을 기록하였다. 중국 합판 생산량은 역사상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북미 합판 생산량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며, 활엽수 합판 생산량은 0.85백만 ㎥, 침엽수 합판 생산량은 12백만 ㎥을 기록하였다.

■ 아시아

불경기로 북미 합판업체들의 매출이 감소하면서 경영이 악화되었다. 반면 아시아 합판산업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했다. 특히 중국 합판산업이 빠르게 발전하였다. 현재 중국 합판공장 수는 약 5,000개소로 추산되며, 공장별 기술은 격차가 심하다. 중국은 2017년에 세계 합판 생산량 중 73.1% 생산한다.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의 합판 생산량은 15.4백만 ㎥이다. 아시아는 합판 생산량은 세계 생산량 중 82.7%를 점유하고 있다.

■ 북미

불경기로 인해 북미의 Georgia Pacific은 미국 남동부 22개 공장 중 14개 공장을 폐쇄하였고, 북미 서부 및 남부(주로 BC주, 오리건주, 워싱턴주)에서도 공장 폐쇄가 이루어졌다. 북미 침엽수 및 활엽수 합판 공장의 연간 생산능력은 약 1.7백만 ㎥를 기록했다. 미국, 멕시코 및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 합판 생산량은 1987년에 최고치인 23.6백만 ㎥를 기록한 이후 감소하였다. 이는 저가의 OSB(Oriented Strand Board, 배향성 스트랜드 보드) 이용고객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1967년에 북미지역 합판 생산량은 세계 생산량 중 56.3%를 차지하였으나, 2017년에는 7.6%로 매우 낮았다. 중국, 남미 및 유럽의 합판 생산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북미의 점유율이 크게 감소하였다.

■ 미국 합판 수입동향

2018년 미국 합판 수입량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브라질 및 칠레에서 수입한 합판의 대부분은 라디에타 소나무(Radiata pine). 카리브(*P.caribaea*), 슬래쉬(*P.Elliottii*) 및 기타 소나무류 합판이었다. 남미 소나무류 합판은 미국 건축법의 인증기준을 충족하여 건축자재로 용이하다. 이에 북미 수입업체들로부터 가격인하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 2017년 ITC(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중국 활엽수 합판에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였다.

*Source : UNECE, Forest Products Annual Market Review 2017-2018, FAO (`18 Nov.)

(3) 합판

■ 에너지 및 환경

에너지 소비 및 환경에 대한 인식은 합판 구매와 판매 시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세계 지속가능 건축인증인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에너지 및 환경디자인 리더십)와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 국제산림관리협의회) 인증에 대한 영향력이 합판시장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다.

■ 신제품 개발현황

북미 목재산업 발전모델은 합판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베니어 파생상품 및 접착제 성분이 다양화되었다. 100년 이상 사용되고 있는 합판은 지속적으로 사용될 것이며 베니어를 기반으로 신기술이 등장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 중 하나가 LVL(Laminated Veneer Lumber, 단판적 층재) 제품이다. LVL은 높은 강도를 갖고 있으며 내외장용 합판을 대체하고 있는 OSB와 유사하게 LVL은 건축자재로 제재목, 철재 및 콘크리트 구조용 빔을 대체하고 있다. LVL은 북미시장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미국 오리건주립대학과 Freres Lumber Comanay는 산학협력을 통해 MPP(Mass Plywood Panel, 매스 플라이우드 판넬) 제품을 개발하였다. 엔지니어 패널로 구조용 건축자재인 CLT(Cross-Laminated Timber, 직교적층목재)보다 품질이 우수하며 제재목, 철강 및 콘크리트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다. MPP 패널은 베니어 기술이 계속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이며 베니어로 다양한 대형 MPP 패널을 생산하여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표] 국가별 합판 생산량 및 점유율 현황 (단위 : 천 ㎥, %)

국가	생산량	점유율	국가	생산량	점유율
중국	117,317	73.1%	인도	2.521	1.6%
미국	9,590	6.0%	캐나다	2,253	1.4%
인도네시아	3,800	2.4%	칠레	1,356	0.8%
러시아	3,729	2.3%	핀란드	1,241	0.8%
말레이시아	3,656	2.3%	기타(98개국)	9,350	5.8%
일본	3,063	1.9%	**합계**	**160,576**	**100.0%**
브라질	2,700	1.7%			

*Source : UNECE, Forest Products Annual Market Review 2017-2018, FAO (`18 Nov.)

(4) MDF

■ 유럽

2017년 유럽 MDF 생산능력은 26.99백만 ㎥을 기록하였다. MDF 생산능력은 2016년(26.77백만 ㎥)과 비교하여 러시아, 벨라루스 및 터키의 생산능력 증가 효과에 의해 높게 나타났다. 2017년 유럽 MDF 생산업체들은 Arauco 합병으로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Arauco는 2016년에 신규 합작 사업을 통해 유럽 목질패널 시장에 진출한 이후, 스페인, 포르투갈 및 독일에서 생산하는 MDF 제품의 재브랜딩 작업을 추진하였다. 터키 및 동유럽 MDF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실시하였고, 여러 신규 프로젝트가 터키, 동유럽에서 추진되었다. Camsan Bodurlar 및 Starwood Bursa 소재 터키 MDF 공장 2개가 신설되었다. 유럽 MDF 산업은 전반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하며 회복되고 있다.

■ 북미

2017년 미국 주택건설업이 호황을 기록하면서 북미 MDF 생산 및 판매가 증대됨에 따라 MDF 산업은 호황기를 맞이하였다. Weyerhaeuser는 미국 Montana주 Columbia Fall 소재 MDF 공장을 인수하였다. 이 기업은 이전 Plum Creek라 불렸으며 Weyerhaeuser 그룹에 편입되었다. Roseburg Forest Products의 캐나다 Ontario주 소재 Pembroke 인수사례는 북미지역의 또다른 인수사례로서 현재 미국 Oregon주 Medite MDF 공장과 함께 신규로 공장을 인수하였다. 북미 사업 지표는 생산비가 평균 3-5% 증가할 것으로 발표하였다. MDF 산업은 생산비 인상 및 수요의 점진적 강세로 MDF 가격이 전반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

지난 5년 동안 중국 MDF 생산능력이 빠르게 증가하여 2017년 말 중국 MDF 연간 생산능력은 44.91백만 ㎥ 기록하였다. 중국은 향후 2년 동안 MDF 생산능력이 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MDF 업체들은 수출보다는 국내소비 증가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몇 년간 중국 정부는 높은 경제성장률 정책에서 안정적 성장정책으로 전환하여 MDF 산업 성장세가 약세를 나타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중국 MDF 산업에 일부 신규투자를 확대하였다. Chinese Yekalon-Jiufngyuan Panel Inc.은 MDF/HDF 생산능력을 확대하여 HDF/MDF 연간 생산능력이 0.25백만 ㎥가 증가하였다. 중국은 3개 신규 프로젝트 외에 2개 MDF 공장 신축 계획이 있다.

*Source : UNECE, Forest Products Annual Market Review 2017-2018, FAO (`18 Nov.)

(4) MDF

■ 동남아

동남아시아 MDF 시장은 호황 및 안정적 상승세의 지속이 예상된다. 베트남 Binh Phuoc 지역 VRG Dongwha 합작공장은 준수하게 운영되고 있다. Thien Lam Dat JSC와 Dieffenbacher는 MDF 공장을 건설하여 연간 생산능력이 0.2백만 ㎥에 달한다. 원자재는 Thien Lam Dat의 조림지에서 공급되는 아카시아를 사용하며 2018년 말부터 가동하였다. 태국은 동남아 최대 MDF 생산국으로 연간 생산능력은 3.76백만 ㎥이다. 태국은 MDF 공장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Advance Fiber Co. Ltd./Metro-Ply 투자가 Karnchanburi에서 추진되었고 Dieffenbacher 장비로 연간 생산능력 0.31백만 ㎥를 기록하였다. Metro-Ply도 일본 Sumitomo로부터 호주 Alpine MDF 공장을 인수하여 MDF 생산시설을 확대하였다.

■ 인도

인도 MDF 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으며 신규투자를 확대하면서 Greenply Industries Ltd.의 연간 생산능력은 0.4백만 ㎥로 증가하였다. Udyog Nagar 소재 Balaji Action Buildwell(Action Tesa)은 신규 라인을 설치하였다. Action Group의 연간 생산능력은 0.25 백만 ㎥으로 집계되었다. 2017년 인도 MDF 생산능력은 0.8-0.9백만 ㎥ 가량 증가하였다.

■ 결론

서유럽과 북미지역 MDF 산업은 변동성이 강한 특징이 있다. 터키 및 러시아는 신규 MDF 공장 투자를 발표하였다. Swiss Krono는 미국 투자와 별도로 멕시코 MDF 공장에 신규로 투자하였다. 브라질, 중국, 이란, 인도, 파라과이, 남아공, 태국, 베트남 및 알제리는 신규 MDF 공장에 투자하였다.

브라질, 중국, 이란 및 베트남에서는 2017년 기준으로 MDF 생산능력이 증가하였다. 2018년 이후에는 브라질, 파라과이, 인도, 태국 등에서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세계 MDF 생산능력은 99.86백만 ㎥ 기록한 이후, 2017년에 10.73백만 ㎥을 기록하였다. 2018년, 2019년 이후 세계 MDF 생산능력은 109.65백만 ㎥로 예상되며 세계 MDF 생산능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Source : UNECE, Forest Products Annual Market Review 2017-2018, FAO (`18 Nov.)

(5) 파티클보드(PB)

■ EU28

2016년 프랑스의 Belipa PB 공장이 폐쇄되었다. 독일 Rauch의 Markt Bibart 생산능력은 0.13백만 ㎥로 증가하였다. Küsters 연속 프레스 라인을 Siempelkamp ContiRoll 장비로 대체하였고 생산능력은 0.63백만 ㎥를 기록하였다. 독일 Sonae Arauco 역시 Beeskow PB 공장 장비를 Dieffenbacher에서 주문하였다. 스페인 Tablicia 공장은 Grupo Martin에 인수되었다. Grupo Martin은 2014년 페루에서 목제품, 가구용 패널 및 부품 최대 유통업체로 자회사인 Tableros Hispanos를 설립하고 PB 공장을 가동하였다.

■ EU28 외 국가

스위스 Kronos Swiss는 신규 PB 공장을 설립하고 Menznau에 소재한 공장에 Dieffenbacher 장비를 설치하였다. 연간 생산능력은 0.58백만 ㎥이며, 2018년 초부터 가동되었다. 리투아니아 Akmene 공장이 완공되었다. Siempelkamp가 Kalipedos Madiena (VMG) 공장에 장비를 설치하였다. 신규 공장은 2020년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러시아에서 연간 생산능력 0.18백만 ㎥인 Plitspichprom 공장이 완공되었다. XyloSuisse LLC는 MK Shatura의 모스크바 PB 및 합성수지 공장을 인수하였다. Shatura는 러시아 가구 생산 대기업으로 고품질 조립 가구 생산에 집중하였다. 폴란드에서 Egger는 19번째 공장을 건설하였고 생산능력은 0.65백만 ㎥이다.

■ 북미

CPA(Composite Panel Association, 미국복합패널협회)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 북미 35개 PB공장 생산능력 중 미국이 64.0%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캐나다(25.7%), 멕시코(10.3%)로 나타났다. Kronospan은 미국 앨라바마주 Oxford에 추가적으로 101백만달러를 투자하여 공장 확장을 실시할 예정이다. 총 투자액은 463백만달러이다. 북미 PB 생산능력은 0.9백만 ㎥가 증가하였고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는 BC주 Smithers 소재 Northern Engineered Wood Products 공장이 폐쇄되어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2018년 4월 CPA 자료에 의하면 PB 판매량은 275백만 ft²로 나타났다.

*Source : UNECE, Forest Products Annual Market Review 2017-2018, FAO (`18 Nov.)

(5) 파티클보드(PB)

■ 중국

벼짚을 원료로 PB를 생산하는 Wanhua Ecoboard는 생산능력이 0.25백만 ㎥로 증가하였다. 환경 친화적 보드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Pmdi이며 포름알데히드 합성수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Taishan은 PB 시설로 개조하여 Dieffenbacher 장비를 2018년 6월부터 생산하였다. 다른 프로젝트는 SciSky로 알려진 Nanning Shuiin Ketien 공장에 Siempelkamp가 공급한 ContiRoll 연속 프레스 장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연간 생산능력은 0.395-0.4백만 ㎥ 수준이다.

■ 기타

인도 Artison 공장에 신규 생산능력은 0.2백만 ㎥로 확대되었다. 뉴질랜드 Kawerau에 중국 Guangxi Fenglin이 투자한 신규 라인은 가동이 시작되었다. 연간 PB 생산능력은 0.6백만 ㎥로 나타났다. 태국 Vanachai Chon Buri PB 공장은 Siempelkamp ContiRoll, 4ftx48.7m 연속 프레스를 설치하였다. 이는 Siempelkamp가 공급한 4ft 프레스 중 최장 길이로 연간 생산능력은 0.38백만 ㎥를 기록할 것이다.

아울러 Green River의 3번째 PB 생산라인이 2019년 8월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Minas Gerais 소재 Duratex 공장 중 1개 생산능력은 0.7백만 ㎥를 기록하였다. Fibraplac 공장 중 1개 생산능력은 0.33백만㎥이며 Masisa Montenegro 공장 중 1개 생산능력은 연간 0.1백만 ㎥로 증가하였다. 수요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MDP(Medium Density Particleboard; 중밀도 PB)를 생산할 것이다. 브라질에서는 5개 PB 생산라인을 건설하여 2018년부터 가동하였다. Santa Caterina 소재 Berneck 2개 공장의 연간 생산능력은 0.4백만㎥를 각각 기록하였다. 남아프리카 PG Bision 공장의 생산능력은 0.33백만 ㎥로 증가하였다. 브라질에서 Arauco가 Masisa do Brazil 인수를 발표하였으며 Duratex는 Itapetininga 공장을 재가동하였다.

■ 결론

2017년 북미 PB 생산능력은 9.33백만 ㎥ 기록하여 전년 대비 57,000㎥ 증가하였고, 향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유럽패널연합회 연간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 및 2016년 PB 생산능력이 증가하였고 2017년에도 2.7%가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2017년 세계 PB 생산능력은 102백만 ㎥로 나타났다. 2019년 및 이후 세계 PB 생산능력은 111백만 ㎥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18년 대비 약 6% 증가하여 매년 상승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Source : UNECE, Forest Products Annual Market Review 2017-2018, FAO (`18 Nov.)

(6) OSB

■ 북미

2018년 미국 목질패널업계는 OSB 소비가 반등하길 기대했다. 건설업체들은 건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이에 따라 구조용 패널의 주문이 증가하면서 목재 건축자재 가격이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호조세는 미국 주택 착공 건수가 125만 호를 기록한 이후, 2018년 4분기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신규 OSB 공장 5개가 생산을 시작하였으나 OSB 가격은 종전 최고가격 대비 50% 하락하였다. 2019년 초에 OSB 공장 2개가 가동중단 기간을 연장하였다. 가동중단으로 일시적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여 여름철 건설 성수기에 재고량이 감소하였다. 2019년 주택 착공 건수는 2018년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2019년 OSB 수요와 가격은 주택 착공 건수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OSB 생산량 증가로 지난 몇 년간 미국 및 캐나다 OSB 시장에서 공급과잉 현상이 발생하였다. 미국 남동부는 미국 목재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였고 산림자원이 풍부하며 임산업에도 호의적이다. 캐나다에서 생산하는 OSB의 75%는 수출하고 있으며, 이중 98%는 미국으로 수출된다. 이처럼 캐나다 OSB 산업은 미국 주택경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 유럽

유럽 OSB 산업계에는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다. 지난 23년 동안 유럽에서 OSB 수요가 증가하였고 생산능력이 확대되었다. 1996년에 세계 OSB 생산능력은 20백만 ㎥를 기록하였으며, 이 중 서유럽 생산능력이 1백만 ㎥를 기록하였다. 2018년 세계 OSB 생산능력은 약 35.50백만 ㎥를 기록하였다. 이중 유럽의 생산능력은 9.40백만 ㎥으로 나타났다. 북미 외 지역에서 OSB 생산능력은 1.36백만 ㎥ 증가하여 11.65백만 ㎥를 기록하였다.

오랜 기간 동안 북미가 OSB 중심을 차지하며, 다른 지역이 북미 OSB 생산능력을 앞서기까지는 장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0년대 유럽에서 OSB 수요는 낮은 수준으로 공급과잉 현상이 발생하였다. 또한 유럽에서 신규 공장이 증가하면서 공급과잉 현상이 몇 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

*Source : UNECE, Forest Products Annual Market Review 2017-2018, FAO (`18 Nov.)

(6) OSB

1990년대 서유럽에서는 OSB 공장이 증가하였으나 동유럽에서 신규 공장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를 포함한 동유럽에서는 OSB 공장 건설계획을 갖고 있다. 현재 서유럽 OSB 생산능력은 4.08백만 ㎥이며 동유럽은 서유럽 생산능력을 초과하여 5.32백만 ㎥를 기록하였다.

■ 아시아

중국 OSB 업체 중 Hubei Baoyun는 공격적인 투자성향을 나타낸다. OSB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산동성 Tanchen 소재 Treezo Group은 최근 OSB 공장에 투자하였다. 2017년 9월 Siempelkamp에 8ft x 30.4m ContiRoll 프레스를 주문하였고 연간 생산능력은 0.20-0.22백만 ㎥이며 2019년 2분기부터 가동된다.

목질패널 제품을 생산하는 Jiangsu Hui Dian New Material Co., Ltd.는 OSB 장비를 Siempelkmap에 주문하였다. Jiangsu성 Shuynag에 소재한 신규 공장은 Siempelkamp Group이 중국에 투자한 2번째 공장으로 Qingdao에 소재하고 있다. 2020년부터 가동되며 연간 생산능력은 0.3백만 ㎥이다. 중국에서 최초로 OSB를 생산한 업체는 Hubei Baoyuan로 2010년부터 생산을 시작하였다. 중국 OSB 업체는 5개로 총 생산능력은 1.21백만 ㎥이다. 아시아는 OSB 시장에 늦게 진입하였으나 OSB 생산능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태국의 선도적 목재 기업인 Vanachai Group Public Limited Company는 OSB 시장에 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현재 말레이시아에 OSB 업체가 1개(Pioneer OSB) 있다. 아시아 OSB 생산능력의 총 합계는 1.36백만 ㎥이다.

■ 남미

남미에서는 1990년대부터 OSB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1996년까지 남미 OSB 생산능력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Berneck & Cie의 OSB 생산능력은 연간 40,000㎥ 기록하였으나 브라질 및 칠레에서 OSB 공장 건설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남미 OSB 생산능력은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브라질과 칠레의 OSB 생산능력 합계는 연간 0.62백만 ㎥이다. 2018년 10월부터 L-P는 칠레 Panquipulli 신규라인에서 OSB 생산을 시작하여 연간 생산능력이 0.27백만 ㎥ 증가하였다. 남미 OSB 생산능력은 0.89백만 ㎥로 증가하였다.

*Source : UNECE, Forest Products Annual Market Review 2017-2018, FAO (`18 Nov.)

(6) OS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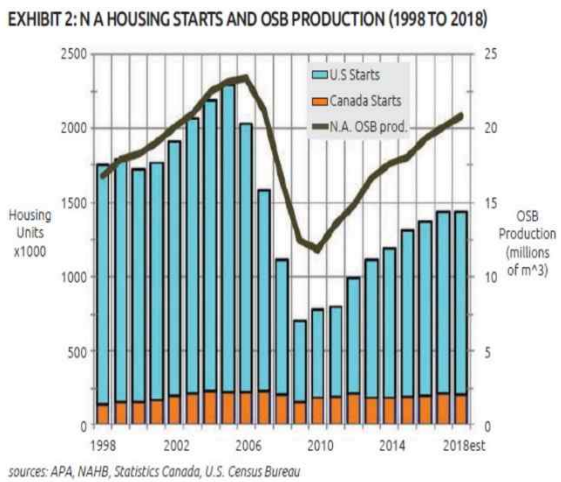
■ 결론

동유럽, 특히 러시아에서는 OSB 프로젝트가 수행되었고 추가적인 프로젝트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Kronospan 및 Krono Swiss가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Chirk 소재 Kronospan 공장이 조만간 완공될 예정이다. 서유럽은 기존 공장 개선작업 외에 추가 생산능력 확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신규 생산라인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태국은 첫 번째 OSB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향후 2년 내에 북미를 제외한 지역에서 OSB 생산능력은 4.27백만 ㎥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에서 전반적으로 OSB 공급은 수요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간 공급과잉 현상이 발생할 것이며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유럽에서는 목조구조 건설량이 증가할 것이며 목재 건축자재 사용량 확대를 촉진할 것이다. 독일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OSB 산업의 전망은 매우 긍정적이다.

[표] 2018년 세계 OSB 생산능력 현황 (단위 : 천㎥)

지역/국가	연간 생산능력	지역/국가	연간 생산능력
유럽	9,403	아시아	1,360
남미	885	북미	23,7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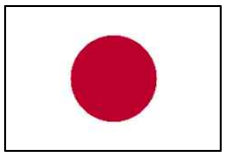
[그림] 1998-2018년 미국 주택착공건수 OSB 생산량 상관관계



[그림] Hubei Baoyuan은 중국 최대 OSB 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OSB 공장 몇 개가 더 건설 중

*Source : UNECE, Forest Products Annual Market Review 2017-2018, FAO (`18 Nov.)

(1) 일본



■ 수요 동향

1) 2018년 1월~10월 기간 주택 착공 가구수가 78만호로 전년 동기 대비 2.9%가 감소하였다.

2) 원천징수 소득세율이 2019년 10월 이후 10%로 인상될 예정이므로 2019년 1분기에 소비자들은 구매를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3) 지진, 태풍 예년 같은 폭우 같은 계속되는 자연 재해로 수요와 공급이 모두 감소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 간에 무역 분쟁으로 제재목 수요가 감소하였다.

■ 생산 동향

1) 2018년 1-10월 제재목 생산은 764만3천 ㎥으로 전년 동기대비 0.5%가 감소하였고, 합판 생산은 267만9천 ㎥으로 전년 동기 대비 0.9%가 증가하였다.

2) 2018년 1-9월 PB 생산은 78만5천 ㎥으로 전년 동기대비 3.1%가 감소하였다.

■ 유통 동향

1) 일본 서부지역에서 여름철 동안 호우 및 산사태로 원목 생산량이 감소하였다. 다른 지역의 경우 9월 이후 기후가 나쁜 관계로 전반적으로 원목 생산량이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2) 자연재해로 인한 보수공사, 2020년 도쿄올림픽 등 제재목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제재소는 높은 원목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입업정책 동향

1)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 파트너십) 2018년 12월 30일 발효
- 11개국이 2018년 3월 TPP에 서명하였고, 발효 후 주요 목제품(SPF, OSB, 합판 등)에 대해 관세가 즉시 감소 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수년 후 폐지된다.

2) 신규 국가 산림 매각계획 승인
- 장기간 대규모 필지를 매각하는 계획이 승인되었다. 이는 대기업의 독점을 피하고, 다수 그룹이 매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공공건물에 대한 목재 사용 현황(비율)을 발표하였고, 목재 사용을 촉진하도록 홍보하였다.

■ 우리나라 목재산업에 미치는 영향

- 2018년 1-11월 기간 일본산 원목 수입은 107,800㎥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가 감소하였다.
- 2018년 1-11월 기간 일본산 제재목 수입은 9,100㎥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가 증가하였다.

*Source : 산림청 2018년도 목재산업정보 (`18 Dec)

(2) 중국



■ 수요 동향

1) 2018년 3분기 중국 부동산 개발 현황

– NBS(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2018년 1-3분기 동안 부동산 개발비는 8조8,670억위안(1조2,850억달러) 기록하여 전년 동기 대비 9.9% 증가하였다. 하지만 목조건축산업은 아직도 작은 시장이다.

■ 생산 동향

1) 2018년 상반기 중국 가구산업 매출액은 3,928억위안(600억달러)를 기록하여 2017년 상반기 대비 7% 증가하였다. 2018년 상반기 중국 가구산업 수익률은 15.3%를 기록하였고 순수익율은 5.7%를 기록하였다.

2) 연간 생산능력 500,000㎥를 가진 신규 PB 생산공장이 최근 장쑤성 수첸시에서 조업을 개시했다. 이는 Dareglobal이 투자한 9번째 목재 패널 생산설비이며, 아시아 최대의 PB 생산공장이다.

■ 유통 동향

1) 중국에 대한 원목 및 제재목 공급망 그리고 중국 목재시장 전체는 대기 및 수질오염 개선을 위한 강제 정책으로 인해 중국의 국내 목재 벌목의 제약 그리고 중국 정부의 공해 공장 단속으로 전반적으로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2) 중국 정부는 국가의 목재 수요를 계속 충족하기 위해 장기적인 전략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중국 국영 기업들은 단기 및 향후 해외 국가들에서 좋은 입장을 차지할 수단으로써 세계 공급망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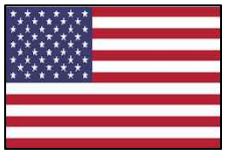
– 공개시장의 더 높은 원재료 가격을 지급하지만, 이러한 고도의 전략적 계획은 더 효율적인 물류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이는 중국에 대한 수출을 위한 해외 생산을 증가를 촉진시킬 것이다.

■ 우리나라 목재산업에 미치는 영향

- 2018년 1-11월 기간 중국산 합판 수입은 235,300㎥으로 전년 동기대비 34.5% 감소하였다.
- 2018년 1-11월 기간 중국산 성형 목재 수입은 18,637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14.6% 증가하였다.

*Source : 산림청 2018년도 목재산업정보 (`18 Dec)

(3) 미국



■ 수요 동향

1) 2019 건축 전망 : 조심스러운 긍정

- 건축업자들은 상승세인 2018년 시점에서, 2019년에도 높은 기대를 하고 있고, 이를 증명하듯 건축 고용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4.9% 증가했다. 미국건축업연맹에 따르면, 2,552개 회사 중 3/4 이상이 2019년에도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숙련된 인력 수급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예상하였다.
- 2018년에는 철강, 알루미늄, 제재목 그리고 다양한 중국 수입품에 대해 거의 예고 없이 관세가 부과되었다. 주택 구매자, 개발자 및 지방채 발행인들은 모두 이자율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자율이 현재 예상보다 더 상승하면 점점 더 많은 건축 프로젝트가 취소될 수 있다.

2) 향후 15년간 미국 침엽수 제재목 수요증가 예상

- 미국 침엽수 제재목 소비는 2030년까지 역대 최고치에 도달할 것을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미국에서의 생산능력 투자 증가, 캐나다 제재목 교역 흐름의 변화, 해외 공급증가 그리고 제재목 가격 인상 압박 등이 예상된다.

■ 생산 동향

1) 2018년 1-7월 미국 제재목 생산량은 5.2%가 증가하였다.
2) 2018년 3분기 구조용 패널 생산량은 감소하였다.

■ 임업정책 동향

1) 목제품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 2018년 9월 24일부터 미국은 중국 목제품에 10% 수입관세를 부과하였다. 반면 중국은 미국 목제품에 5-10% 관세를 부과하였다. 예외적으로 미국 서던 옐로우 파인(southern yellow pine) 원목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였다.
-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 하는 목제품 수입량은 전체 수입량 중 약 10%를 점유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에서 대체 목제품을 수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
- 중국은 대형 수입국이므로 중국은 대체 수입원을 찾을 필요가 있다. 뉴질랜드 라디에타 파인(radiata pine) 원목, 러시아 원목 또는 일본 삼나무 원목을 대체품으로 수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Source : 산림청 2018년도 목재산업정보 (`18 Dec)

(4) 호주



■ 수요 동향

1) 현장 외 목재 건축의 혁명 유지

– 새로운 스마트 기술이 건축 생산성과 속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목재와 매스 우드 시스템을 활용하는 건축 프로젝트의 수가 해외와 호주 모두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 호주에서는 숙련 노동자 점점 부족해짐에 따라 새로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등장하는 새로운 목재 및 매스 우드의 현장 외 기성 시설에 더 크게 적응하는 것에 대한 동인이 되었다.

2) 호주 인구 1명당 제지제품 소비량이 작년 대비 2.1kg 감소

– 최근 IndustryEdge 분석 자료에 의하면 호주 인구 1명당 제지 및 종이 보드 소비량이 2017-18년에 1.8% 감소하였고 평균 소비량이 129.3kg으로 감소하였다. 신문용지 및 통신용(P&C) 종이 소비량의 감소가 주요 요인이다. 하지만 티슈, 포장재 및 산업용 제지소비량은 증가하였다.

■ 생산 동향

1) “Sustainable Timber Tasmania” 연간 보고서에 의하면 공공 산림지에서 생산한 Tasmanian 임산물 매출액이 작년 대비 19% 증가하여 144.86백만달러를 기록하였다.

– 연간 원목 생산량은 1.5백만 톤 이상이며, 고품질 제재용 유칼립투스 원목을 고객들에게 129,000㎥ 공급하였다. 생산한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생산량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2) 호주 정부는 10억 그루 조림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호주 정부의 임산업 계획에 의하면 재생가능 제재목 및 목재섬유 산업은 미래 도전 및 기회에 대응하며 준비하는 산업이다.

– 농업·수자원부 David Littleproud 장관과 Richard Colbeck 차관 및 상원의원은 신규 20백만달러 투자계획을 발표하였다.

– 2050년까지 목재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향후 10년 동안 10억 그루 나무를 식재할 계획이다.

■ 우리나라 목재산업에 미치는 영향

- 2018년 1월-11월 기간 호주 원목 수입은 15,280㎥으로 전년 동기대비 85.9%가 감소하였다.
- 제재목은 9,300㎥이 수입되어 전년 동기 대비 55.3%가 감소하였다.
- 호주는 이제 목재 수출국보다는 수입국으로 변화해가고 있다.

*Source : 산림청 2018년도 목재산업정보 (`18 Dec)

(5) 독일



■ 수요 동향

1) 독일 건축 허가건수 7.9% 증가

- 9월 비주거용 건물 허가건수가 13.7% 증가하였다. 2018년 9월 독일 신규 주거용 건물 허가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7.9% 증가하여 24,618호(2017년 9월: 22,815호) 기록하였다.

■ 수출입 동향

1) 독일 침엽수 제재목 수출 3% 증가

– 독일 침엽수 제재목 수출이 2018년 1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1% 감소하였고, 2분기에는 1% 증가한 후 3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3%가 증가한 1.39백만 ㎥(2017년 3분기: 1.35백만 ㎥)을 기록하였다.

■ 유통 동향

1) 독일 제재산업 지속적으로 2자리 수 증가율 기록

– 제재산업 매출액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10.3% 증가하였다. 2018년 7월에는 더욱 높은 16.3% 매출액 증가율로403.5백만유로를 기록하였다.

■ 임업정책동향

1) 소규모 민간 산림 복구에 더 많은 자금 소요

– 독일 산림 소유자 협회(AGDW)와 독일 산림 협의회(DFWR) 실무그룹은 정부로부터의 광범위한 지원이 없으면 폭풍, 가뭄 및 충해에 의해 2018년 파괴된 산림지역에 초래된 피해의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대부분의 사유림 소유자들은 체계적인 재조림에 적정한 재정적 유보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2) 연방정부, 재난 후의 복구를 위해 2천5백만유로 지원

– 독일 식품, 농업 및 소비자 보호부 장관 Julia Klöckner의 정보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피해 방지 및 극한 기상조건 대체를 위해 5년에 걸쳐 총 2천5백만유로를 산림 소유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 우리나라 목재산업에 미치는 영향

– 2018년 1월-11월 기간 독일에서 수입된 제재목은 115,100 ㎥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6%가 감소하였다.

*Source : 산림청 2018년도 목재산업정보 (`18 Dec)

(6) 러시아



■ 수요 동향

1) Lavant : 무역거래 감소

– 2018년 6월 말 및 7월 초에 Levant 침엽수 제재목 시장이 아직 대부분 긍정적이었으나 최근 크게 악화되고 있음. 중유럽 및 북유럽 공급업체에 의하면 수입업체들의 유동성 문제가 거래가 약세로 전환된 주요 원인이다. 은행들은 신용장 발급을 주저하고 있다.

■ 생산 동향

1) UNECE/FAO: CIS 지역 성장세 둔화

– 2009년 이래 처음으로 2017년 러시아 합판 생산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중국에 대한 원목 수출의 지속적인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

2) 침엽수 제재용 원목 수요가 공급을 초과

– 소수 인원 고용과 벌채장비 미사용에 따라 벌채량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다. 벌채한 원목량 증가는 운송장비 부족으로 운송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 수출입 동향

– 라트비아 침엽수 제재목 수출량이 4% 증가하였다.
– 러시아 침엽수 제재목의 중국 수출량이 7% 증가하였다.

■ 임업정책동향

1) EU-러시아 원목 수출 쿼터제

– 스프루스(spruce) 원목의 경우 13%, 소나무류 원목의 경우 15% 관세를 지불함. 쿼터량 외로 EU시장으로 수입하는 원목이 지불해야 하는 관세는 현재 8% 또는 적어도 55 유로/m^3 지불

■ 우리나라 목재산업에 미치는 영향

– 2018년 1월-11월 기간 러시아 제재목 수입은 358,300 ㎥으로 전년 동기대비 3.4%가 감소하였다. 국내 수입시장 점유율은 16.2%이다.
– 2018년 1월-11월 기간 러시아 원목 수입은 6,390 ㎥으로 전년 동기 대비 79.4%가 감소하였다.

*Source : 산림청 2018년도 목재산업정보 (`18 Dec)

(7) 기타 국가의 임업동향

■ 수출입 동향

1) 칠레 : 2018.11월까지 목재 관련 제품의 수출액은 총 6,294백만달러 집계되어 전년도 같은 시기 대비 약 28% 상승



- 11월 한달 동안 기록된 수출액은 561백만달러로 10월 대비 약 15%가 하락한 수치이긴 하나 2017.11월 대비 약 43%가 상승한 수치이다.
- 산림청 관계자는 세계 시장에서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좋은 칠레의 유칼립투스 및 라이에타소나무 펄프재가 긍정적인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을 그 이유로 밝혔다.

2) 우루과이 : 2018년 기준 목재 관련 제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총 2,250백만 달러가 상승하였고 이는 전년 대비 33%가 상승



- UPM와 Montes del Planta 2개사의 펄프재로 인해 나타난 현상으로 전문가는 분석하면서 2019년에도 이러한 현상을 예측하고 있다.

■ 목재 시장 동향



1) 목재 산업 부분에 대한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사전 자금 조달 계획 발표

- 아르헨티나 란소주 정부는 2019년 1월 3천만 페소(약 75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투자자문연합(CFI)의 일정 평가를 통과한 회사에 대하여 각 회사별로 최대 10만 달러를 별도의 금융비용 없이 최대 180일간 빌려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 임업정책 동향



1) 아르헨티나 : 최근 국가 산림 면적을 200백만ha 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 계획은 Mendoza지역에서 추진되길 희망

- 현재 아르헨티나 산림 면적은 120백만ha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10년 내 이를 200백만 ha까지 늘리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수립되었다.

2) 페루 : 국가차원의 산림분야 개발 3가지 지표 확정 발표



- 중앙정부 농업부 및 산림청은 2019~2021년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림분야 개발 관련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신청이 가능한 정책을 발표하였다.

  ① 1,455천 ㎡를 공급을 위한 조림, ② 76만 ha 산림생태계 복원, ③ 산림자원정보 연구·개발

*Source : FEPARMA (파라과이 목재업 연맹) (`18. Nov.), Argentina Forestal(`19. Jan.), el territorio(`19. Apr.), SERFOR (페루 국가 산림과 야생동물 서비스) (`19. Feb.)

(1) FAO, 국제 산림의 날에 새로운 산림 교육 이니셔티브를 발표

2019년 3월 21일 로마에서 FAO는 어린이와 젊은이들에게 지속 가능한 숲의 사용과 보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두 가지 새로운 산림 교육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국제 산림의 날을 기념했다. 독일은 2백만달러가 넘는 자금을 지원하여 산림 교육의 주요 문제점을 해결하고 일반 대중들에게 산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을 주려고 한다.

FAO 사무총장인 Jos Graziano da Silva는 "교육은 미래 세대를 위한 천연 자원을 보호하기위한 중요한 단계이며, 어린이들이 어렸을 때 산림에 대해 배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라고 말했다. 올해 국제 산림의 날의 주제인 "산림과 교육"은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모든 수준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FAO 사무총장은 " 산림은 공기, 토양, 물, 사람들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며 기후 변화를 막고 기아를 퇴치하는 등 우리가 직면 한 가장 큰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FAO는 이러한 광범위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산림 벌채, 토지 황폐화 및 산지전용 등의 이유로 세계 산림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 받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현재 숲에 대한 교육은 종종 불충분하며, 새로운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 대학에서 임업을 공부하는 젊은이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심지어 초, 중등학교의 경우 교육과정이 변하고 있다. 산림 교육이 제공될 때는 산림의 다기능적인 역할을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FAO와 파트너들은 산림을 위협하는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산림 분야가 계속 될 수 있는 복잡한 도전과 기회를 다룰 수 있는 종합 산림 교육 프로그램 및 농촌 직업 학교의 창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탄자니아와 필리핀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산림 이용과 보존에 대한 교육

발표된 프로젝트 중 하나는 탄자니아와 필리핀의 9-12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산림의 문해력 증진과 숲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1백만달러가 넘는 독일 기금으로 3년 동안 진행된다. 양방향 체험형 산림 기반 학습 접근법을 기반으로 산림 교육 모듈을 개발하고 이 자료를 전 세계의 활용될 수 있도록 웹사이트로 보급될 것이다.

탄자니아 절반에 가까운 인구와 필리핀 인구의 ⅓은 15세 미만이다. 어린 학생들에게 지속 가능한 산림 이용과 보존에 대해 교육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양국 숲의 완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분명한 진입점이다.

*Source : FAO (`19. Mar.)

(1) FAO, 국제 산림의 날에 새로운 산림 교육 이니셔티브를 발표

▶ 글로벌 임업교육 강화

1백만달러가 넘는 독일 기금으로 진행되는 두 번째 프로젝트는 FAO, 국제 열대 팀버 기구(ITTO), 국제 산림 연구 기구(IUFRO), 산림 협동 조합 등 관계된 다른 파트너들과 함께 전세계의 산림 교육 현황을 검토한다. 산림 교육의 격차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권고안을 개발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또한 산림 교육을 위한 "원 스톱 숍 (one-stop-shop)"역할을 할 온라인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Source : FAO (`19. Mar.)

(2) 지역사회의 산림 관리가 산림 벌채와 빈곤 모두를 감소시킨다.

네팔에 있는 지역사회가 그들의 산림을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 지역의 산림 벌채와 빈곤을 동시에 감소시켰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맨체스터대학이 이끄는 국제 전문가 팀은 지역사회 산림 관리가 산림 벌채에서 37%의 상대적인 감소와 4.3%의 상대적인 빈곤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Nature Sustainability에 발표된 연구 결과는 CBFM(Community-based Forest Management, 지역 사회 기반 산림 관리)에 관한 가장 큰 연구입니다. 이 보고서는 수십 년간 CBFM이 활발히 추진되어 온 네팔 전역의 18,000개 이상의 지역 산림 계획(관리)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다.

맨체스터 대학의 수석 저자인 요한 올데코프 박사는 " 우리의 연구는 CBFM이 전 국토의 사람들과 환경을 위한 분명한 윈-윈을 이루어 냈다는 것을 보여준다 " 고 말했다. “네팔은 안전한 토지 권리를 통해 지역사회가 자원을 보존하고 환경 악화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 라고 전했다.

산림 벌채 감소는 지역 복지에 드는 비용으로 발생하지 않았다. 이 연구는 CBFM이 있는 지역이 산림 벌채 감소와 빈곤 감소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51% 더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뉴캐슬 대학의 마크 휘팅 햄 교수는 " 환경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인류의 필요, 또는 원하는 것을 조화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 " 며 " 이 발견은 긍정적인 해답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공동저자인 아룬 아그라왈 미시간대 교수는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를 개선하는 것과 동시에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메커니즘인 CBFM을 식별하는 것은 기후 변화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세계적 노력에 있어 중요한 진전"이라고 말했다. 멕시코, 마다가스카르, 탄자니아는 비슷한 지역사회-숲 관리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등이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공동저자인 캐서린 심스 아머스트 칼리지는 "우리는 혁신적인 보존 정책을 시행한 네팔의 경험을 통해 배우려 했다. 우리는 본 방법이 다른 맥락에서 지역사회 산림관리에 대한 향후 연구에 유용할 것이며 다른 거버넌스 구조와 비교되기를 희망한다. " 고 밝혔다.

만약 다른 지역들이 네팔의 성공을 재현할 수 있다면, 지역사회 산림 관리는 여러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데 훨씬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Source : ScienceDaily (`19. May.)

(3) 뉴질랜드 산림산업공학회, Harvest TECH 19 개최

2019년 6월 26~27일 뉴질랜드 로토루아에서 HarvestTECH 개최

뉴질랜드의 산림산업공학회(FIEA; Forest Industry Engineering Association)는 Harvest TECH 19를 2019년 6월 26~27일에 개최한다. 뉴질랜드 로토루아에서 450명의 산림 기업, 산림 관리자, 산림 소유자, 벌목 기획자 및 장비 공급 업체, 장비 엔지니어, 임업 및 목재 수확 연구원 등이 참석하는 행사로 목재 수확 작업, 계획 및 목재 운송을 개선할 수 있는 산업의 새로운 모습과 혁신적인 기술 그리고 실용적이며 최신의 기술을 제공할 예정이다.

Harvest TECH 19 행사는 ① 목재 수확 기술, 지역 운영에 적합한 새로운 장비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 ② 수확 작업의 변화를 이끌 혁신적인 기술(Robotics, 자동화, UAV, 모바일 및 작업자 wearable 툴, ③ 가파른 경사면에서의 목재 수확 혁신기술, ④ 기존보다 현명한 운영 및 비즈니스 활용도 향상, ⑤ 사람 - 미래 사업을 위한 진정한 이슈, ⑥ 목재 수확 연구 개발 - 프로그램, 우선 순위 및 향후 연구, 총 6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2일 간의 컨퍼런스 뿐만 아니라 전시장 내부 및 외부에서 30개 이상의 업체는 보유한 기술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Harvesttech19
Improving Safety & Productivity in Harvesting
Steep Slope Logging – Mechanisation & Automation – Harvest Planning
26-27 June 2019, Rotorua, New Zealand

*Source : Harvesttech19 홈페이지 (https://harvesttech.events/)

(4) 기록적인 손실로부터의 휴식, 그러나 열대림은 아직도 문제

2016년과 2017년은 건조하고 더운 날씨로 인해 광범위한 화재가 발생하여 세계의 열대 우림 지역에 특히 악영향을 미쳤다. 농업 활동과 더불어 기록적인 수준의 산림 파괴가 발생했다. 2018년에는 일반적으로 습기가 더 많았고, 화재 발생 횟수도 적어서 산림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었다. 발표된 데이터에 따르면 예상대로였지만 축하할 만한 이유는 거의 없었다.

WRI(World Resources Institute, 세계자원연구소)의 프로그램인 Global Forest Watch가 발표한 위성 이미지 분석에 따르면, 약 3천만 acre의 열대 우림이 2018 년에 손실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2016년 4,200만 acre와 2017년 3,900만 acre에 비해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2001년부터 시작된 인공위성 분석이 시작된 이래로 2018년의 총계는 4번째로 높다.

열대지방과 온대지방의 산림은 기후변화를 대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전체적으로 크기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유엔의 한 연구는 1990년과 2015년 사이에 전세계 산림 보호 지역이 약 3% 감소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2019년 1월, 브라질에 새로 취임한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는 광업, 농업 및 기타 개발에 보호지역을 개방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브라질은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많은 산림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가나와 아이보리 코스트의 경우에도 전 세계적으로 초콜릿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여 코코아 재배지를 확장하는 코코아 농부들에 의한 벌채 증가로 인해 산림 손실의 비율이 높았다. 아마존 유역에서 콜롬비아는 2년 연속 손실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정부와 반군이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민간 개발에 개방한 반군 단체간의 평화 협정의 여파였다.

이 연구소의 연구원인 시모어씨는 “산림 손실을 줄이기 휘한 노력은 외부 압력 보다는 국가 내에서 발생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었다.”라고 인도네시아의 경험을 빗대어 말했고, 국내의 정치, 정책 등 내부의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Source : The New York Times (`19 Apr.)

(5) 인니·태국·말레이, 천연고무 감축 합의, "국제가격 조절"

세계 천연고무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인도네시아와 태국, 말레이시아가 내달부터 4개월간 천연고무 수출량을 24만 톤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7일, 3개국으로 구성된 ITRC(International Tripartite Rubber Council, 국제 삼자 고무협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천연고무 수출 감축 규모가 24만 톤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들 국가는 지난달 하반기 태국 방콕에서 열린 회의에서 수출량을 감축하기로 했지만, 당시엔 시기와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었다. 3개국은 수출을 줄이는 대신 도로 건설 등에 천연고무를 활용하는 등 방식으로 국내 소비량을 늘릴 계획이다.

국가별 감축 규모는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았지만, 인도네시아의 경우 약 9만8천t을 감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네시아와 태국, 말레이시아는 작년 11월 도쿄상품거래소(Tokyo Commodity Exchange, Inc; TOCOM)에서 국제 천연고무 가격이 27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하자 수출량을 줄여 적정 가격대를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ITRC는 2017년 말에도 3개월간 수출량을 35만t가량 감축했다. ITRC는 2001년 설립됐으며 이 기구를 통해 천연고무 수출량 감축이 합의된 것은 이번이 6번째다.



*Source : PAGI 자카르타경제신문 (`19 Mar.)

(6) 한국-인니, 바이오매스 에너지 투자 협력 회의 개최

인니 APHI(Asosiasi Pengusaha Hutan Indonesia, 인도네시아 산림업자협회)와 한국 에너지경영 협회가 만나 IIPC(INDONESIA INVESTMENT PROMOTION CENTRE, 투자 진흥센터)에서 바이오매스 에너지 투자 관련 협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APHI 의장은 IIPC 이사와 서울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관, 서울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관 무역 담당자를 초청했으며, 이번 양자 회담은 인도네시아의 바이오매스 에너지 투자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바이오매스 에너지 관련 담당자는 한국-인도네시아는 2016년 이후 17개의 MOU를 체결했으나 제대로 실현된 사업이 없다고 밝히며 “이제 우리는 IIPC-투자조정청(BKPM)-한국측이 직접 모니터링을 해 사업 체계화를 진행 중이다,”라고 전했다.

EMCO는 최대 30년간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전했다. APHI 의장은 이 사업을 잘 활용하여 지속적인 목재 공급을 필요로 하는 발전소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에너지 경영 협회장은 현재 협회가 인도네시아에 우드칩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Source : PAGI 자카르타경제신문 (`19 Feb.)

(1) 국내 임업 동향 및 전망

■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19년 10월부터 본격 시행예정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산림파괴 방지를 목적으로 지난 2018년 10월부터 시범운영 중에 있다.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을 목적으로 목재와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청 전자 통관시스템으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합법적 벌채에 관한 입증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목재제품으로는 목재펠릿(HS코드 4401.31), 원목(4403), 제재목(4407), 합판(4412)이 있다. 2019년 5월 원목을 시작으로 수입신고 서류검사 대상 품목이 점차 강화될 예정이다. 6월부터는 원목 및 칠레산 제재목을 대상으로 집중 계도가 이루어질 것이며 점차 품목을 합판 및 목재팰릿으로 확대하여 2019년 10월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선하증권(B/L) 발급 즉시 수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며 국가별 유효한 목재합법성 입증서류 목록은 산림청 및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 네이버 밴드 '목재세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입신고 서류검사 문의전화는 1600-3248 (3번 선택)이다.

- 산림청 홈페이지 → 산림정책 → 산림보호 →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 → 진흥원소개 → 사업안내 → 해외산림자원개발 지원 → 합법목재 교역촉진



*Source : 2019 한국임업진흥원자료

(1) 국내 임업 동향 및 전망

■ REC 가중치 조정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시장 전망

RPS(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는 일정 규모 이상(50만Kw)의 발전사업자(공급 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서 의무이행 실적 평가를 통해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가 발행된다.

REC는 시장기능을 통해 거래가 가능한데, 발전을 위해 이용된 신재생에너지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가 달리 적용되며 2차례 (2015년, 2018년)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현재는 2018년 부터 개정된 REC 가중치가 적용된다(산자부, 2018).

■ REC 가중치 적용에 따른 국내 영향과 전망

수입 목재펠릿의 주요 수요자는 의무공급자인 발전사들로서 현재 생산되는 국산 목재펠릿과는 시장이 서로 다르지만 최근 신영에너지는 발전사를 대상으로 미이용 목재를 활용하여 연간 30만 톤의 목재펠릿을 공급할 예정이다.

수입산과 국산목재펠릿의 시장이 서로 다르고 REC 가중치의 개정에 의해 미이용 목재만을 이용할 경우 산업용재의 수요에는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발전사가 사용하는 목재펠릿은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2019년 10월 1일 시행)의 영향으로 목재펠릿의 수입량이 감소할 경우, 산업용재를 이용해 목재펠릿을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산업용재에서 발전용 목재펠릿 또는 목재칩을 생산할 경우, 원목 수요를 자극시켜 가격을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이용목재를 통해 연료용목재의 공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목재이력관리시스템의 엄격한 운영이 요구된다.

*Source : 2019 산림임업전망 발표자료
김경하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정책연구부장 (`19 Jan.)

(1) 국내 임업 동향 및 전망

■ 목재산업

원목으로 환산한 전체 목재수요량은 건축경기 침체, 미중무역분쟁 및 이란 제재 등으로 목재 및 종이제품 수요가 감소하여 2018년은 전년 대비 3.1% 감소한 29,147천 ㎥으로 나타났다. 제품별 수요량을 살펴보면, 종이판지용 원목 수요량이 전체 소비량의 47.1%를 차지한 13,724천 ㎥, 다음으로 제재용재 8,389천 ㎥, 합판용재, 4,076천 ㎥ 그리고 MDF용재가 1,779천 ㎥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 국내 목재수요량은 28,926천 ㎥으로 전망되어 전년 대비 0.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3년에는 27,791천 ㎥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감소 원인은 제재용재, 합판용재, MDF 용재 등은 건축경기 침체에 의한 소비감소, 종이는 미국의 이란 수출제재 및 마중무역분쟁으로 인한 수출 부진이며, 이로 인해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목재소비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산재 공급량은 2018년 4,672천 ㎥에서 2019년에는 4,730천 ㎥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원목수입량은국내 제재용재 소비 감소로 2018년 2,969천 ㎥에서 2019년에는 2,916천 ㎥으로 전년 대비 1.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2023년 국산재 공급량은 건축경기 침체로 인한 보드용재 수요 감소로 4,724천 ㎥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품수입량은국내 건축경기 침체로 제재목 및 목질보드류 수요가 모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2019년에는 전년 대비 1.1% 감소한 21,280천 ㎥이 2023년에는 20,262천 ㎥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국내 원목자급률은 61%, 목재자급률은 16%로 나타났으며, 2019년 국내 원목 자급률은 62%, 목재 자급률은 17%로 전망된다.

*Source : 2019 산림임업전망 발표자료
김경하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정책연구부장 (`19 Jan.)

(1) 국내 임업 동향 및 전망

■ 단기소득임산물 - 수출입 동향 및 전망

2018년 임산물 총 수입액은 7,509백만달러로 전년 대비 9.8% 증가하였고, 총 수출액은 489백만달러로 전년 대비 1.5%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무역수지는 전년보다 10.5% 악화된7,020백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2018년 단기소득임산물 수입액은 전년 대비 8.8% 증가한 804 백만달러, 수출액은 전년 대비 7.7% 증가한 112 백만달러로 추정된다. 국내 소비량 감소로 인해 수실류, 산채류, 약용식물의 전년 대비 수입액이 감소하는 반면, 버섯류는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수입액은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 임산물 총 수입액은 전년 대비 3.4% 증가한 7,762백만달러, 총 수출액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497백만달러로 전망된다. 무역수지는 전년보다 3.5% 증가한 7.264백만달러 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기소득임산물 수입액은 864백만달러로 전년 대비 7.5% 증가, 수출액은 전년 대비 2.7% 감소한 109백만달러로 전망된다. 버섯류는 전년 대비 5.1% 감소하고, 수실류와 산채류 전년 대비 각각 1.9%, 6.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산물의 수입 가격 상승으로 총 수입액 2023년에 8,860백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총 수출액은 연평균 1.8%씩 증가하여 2023년에는 534백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수지 적자는 연평균 3.5% 증가한 8,327백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임업생산액 - 임업

2018년 원목 생산액은 493십억원으로 추정된다. 2019년 원목 생산액은 REC 가중치 상향으로 목재펠릿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어 공급량은 전년 대비 1.4% 증가한 499십억원으로 전망된다. 이후 2021년에는 500십 억 원으로 증가하나 2023년에는 보드용재 수요 감소로 498십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임업생산액 - 임산업

2018년 임산업 생산액은 24,738십억원으로 추정되며 종이판지 생산액이 22.1조원으로 89.4%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제재목 생산액은 865십억원, 합판이 142십억원, PB가 198십억원 그리고 섬유판이 577십억원으로 추정된다. 2019년에는 종이판지 생산액이 22.0조원, 제재목 생산액은 865십억원, 합판은 140십억원, PB는 198십억원 그리고 섬유판은 577십억원으로 총 생산액은 24,621십억원으로 전망된다.

*Source : 2019 산림임업전망 발표자료
김경하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정책연구부장 (`19 Jan.)

(2) 산림청

■ 2019 아태지역 산림주간[1] 및 28차 아태지역 산림위원회[2]

산림청, 인천광역시, FAO 주관으로 개최되는 2019 아태지역 산림주간 및 28차 아태지역 산림위원회는 2019년 6월 17일(월)부터 6월 21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 평화와 웰빙을 위한 산림이라는 회의 주제로 각국 정부대표(46개국), 국제기구, NGO 등 국내외 1,5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아태지역 산림과 관련된 주요 과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아태지역 정부, NGO, 연구소, 지역 및 국제네트워크, UN기구, 민간부분 관계자가 참여하여 40여개의 워크숍 및 세미나 진행할 예정이다.

28차 APFC(아태지역 산림위원회)와 APFW(아태지역 산림주간), 각종 부대행사, 현장방문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① 산림경관복원, ② 사람과 산림의 조화, ③ 탄력성 있는 환경조성, ④ 합법적인 무역과 시장 촉진, ⑤ 정책과 기관의 혁신적 변화라는 주제로 총 5개의 스트림이 진행된다.

김재현 청장은 2019 아태지역 산림주간 홈페이지의 인사말에서 “APFW 2019에 참가하는 정부관계자, 학계, 민간,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보다 넓은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여 평화와 웰빙을 위한 산림을 이용하는 것을 도모하고자 합니다"라고 남겼다.



1) 아·태지역 산림주간
(Asia Pacific Forestry Week : APFW)
정부, 비정부기구(NGO), 학계, 국제기구, 민간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 아·태지역 산림 관련 주요 도전과제와 해결방안을 논의

2) 아·태지역 산림위원회
(Asia Pacific Forestry Commission : APFC)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원국이 격년 주기로 모여 역내 산림과 관련된 현안 검토 및 이행사항을 합의하는 회의

* Source : APFW 2019 홈페이지

(3) 한국임업진흥원

■ **해외산림자원으로 미래를 준비하다!**

-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산림자원개발 기업 세미나 개최 -

산림청(청장 김재현)과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4월 30일(화), 해외산림자원개발에 대한 최신 정보제공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해 해외산림투자기업, 국내 산림자원 수요기업 관계자 등 70여 명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도네시아 바이오매스 조림지 민간투자기회 등 해외산림자원개발 투자를 위한 기초 정보와 국제 산림정책동향, 국내 목재 시장 동향 및 반입정책 등 지속가능한 해외산림자원의 개발 고려사항에 대한 주제가 발표되었다.

세미나에 참석한 기업관계자들은 해외산림자원개발 융자 제공 시 조림 뿐만 아니라 조림지 확보에도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전환경조사와 정책자금 연계 등을 건의하였다.

구길본 원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해외산림자원개발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ontact Us...

발행처

한국임업진흥원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Tel. 1600-3248)

홈페이지

www.kofpi.or.kr

편집·디자인

경북대학교
충남대학교

해외산림정보서비스

ofiis.kofpi.or.kr

문의처

이형준 (lhj0724@kofpi.or.kr)

Kofpi
한국임업진흥원
Korea Forestry Promotion Institute

CONFIDENTIAL AND PROPRIETARY
Any use of this material without specific permission of Kofpi is strictly prohibited